

매순간 임제의 오역죄를 지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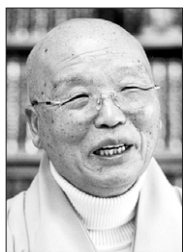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임제문하의 일입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오역죄인이 우레소리를 듣느니라.” 오역죄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죄업(罪業)입니다. 하지만 선가의 대종장인 임제 선사는 오역죄를 당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일어남이 허공의 메아리인 줄

알기에 어디를 가든지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모든 법이 빈 모양(空)임을 알기에 어디든지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과 마음이 꼭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화합승단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대들의 한 생각과 마음이 번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경전과 불상을 불사른다’는 것은 인연이 공(空)하고 마음과 법이 공(空)함을 알고서 일념이 되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래 오역죄는 짓지 말아야 할 죄이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야 하는 오역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오역죄를 지을 수만 있으면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재물 · 여색 · 명리 버리고 공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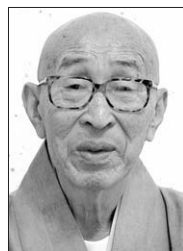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재물과 여색과 명리가 독사같다고 부처님과 조사가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나쁜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공부하면 기쁨통을 머리에 이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짚 짓는 일을 몹시 싫어했는데 상좌가 찾아와서 “저는 짚을

지어도 시주를 상대안하고 열심히 정진만 하였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울을 건너는데 발에 물을 안 묻힐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어놓았으니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안 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천리마에 채찍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연 모두 쉬고 혈떡이는 마음 없게 하라



지중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백암 산중에 상서로운 기운이 총만하니, 삼계제천(三界諸天)이 환희 융양하고, 만상삼라(萬象森羅)가 골수(骨髓)를 여실(如實)히 드러내어 여러분을 반깁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제자리에서 의연히 도리(道理)를 행하고 있는데, 오직 사람들만이 좌고우면(左顧右盼) 동분서주(東奔

西走) 하고 있습니다. 천 가지 행과 만 가지 말을 너절하게 쏟아 내면서 제 잘났다고 펼쳐보아 모두 다 한 망태기 속에서 구르는 도토리알과 같을 뿐입니다. 이번 동안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바깥 반연을 모두 쉬며, 안으로 혈떡이는 그 마음을 없게 하여, 심전(心田)에다 화두보검(話頭寶劍)을 세워두고 전광취모(電光吹毛)하여 크게 한번 옷길 바립니다.

초심 다져 생사의 적과 용맹하게 맞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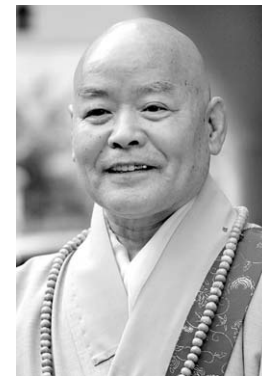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이제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다 잡아 정법의 깃발이 다시 휘날리게 해야 합니다. 작금의 서로서로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수행자들이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통해서 각자의

초심을 다져 생사의 적과 용맹하게 맞설 때 비로소 소임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것, 졸릴 때 졸리는 줄 아는 그놈이 누구입니까? 그런 줄 아는 그것을 본래면목이라고 합니다. 일용 가운데 행주좌와 하는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확인을 여실하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희망은 깨달아 부처 이루는 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도가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데 있다는 것을 누가 믿으리오 (道在人弘孰可憑) 말과 행동은 무릇 서로 맞아야 하거늘 (發言須與行相應) 망령된 생각도 짝처럼 날마다 자라고 (妄念如苗逐日增)

탐욕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니 어느 때나 만족할 수 있으리오. (貪心似海何時足)

움직이면 참에 어긋나고 고요하면 틀리니 (動則乖眞靜則差) 그렇다고 사랑하는 바가 없으면 더욱 잘못이라 (非思量處更諍訛) 마음이 없으면 조사의 뜻에 맞지 않고 (無心未合祖師意) 생각 있음 또한 모든 번뇌의 마장이네. (有念盡爲煩惱障)

이 계송은 태고 스님의 스승이신 석옥청공(石屋淸猗) 선사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은 중생의 마음 바탕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아래의 것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머물러야 하는 수행자의 정신자세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듯합니다. 우리 불교와 승문(僧門)마저도 적잖이 시끄럽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도(正道)를 가지 않고 자기중심의 사도(私道)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헤아리고 분별하는 차별적 집착을 일으켜 그 대상을 빠르게 보지 못하는 편견을 변계소집성(偏計所執性)이라 합니다. 수행이란 모름지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타파하고 분별을 여의는 일이지요. 마음속에는 항상 분별심을 담고 있으면서 경학(經學)이나 몇 줄 배우고 이해한다고 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수행의 본지(本旨)는 깨달음에 있고, 깨달음의 목적은 생사를 초탈(超脫)하는데 있습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老去人之賤) 병들면 천한 사람도 멀어 집니다(病來親也疎). 희망은 오직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길이니 허송세월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월암당 정대 대중사 법문집

유려한 선시를 타고 흐르는 선가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깨달음이라는 완벽하고 단순한 이치에 다다르게 된다.

월암당 정대 | 신국판 변형 | 388면 | 값 15,000원

천지는 꿈꾸는 집이여니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

-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순간적 자태를 가지신 분이자 반대편도 부러히 얻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네. - 명전 스님(명운사 주재)
- 어느 자리, 누구 만나든지 스님께는 항상 주인이 되어 계셨다. - 원명 스님(고상정사 주재)
- 장대 스님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딱 하나 있다. 웃음이다. 일 없이 태평가나 부르는 시를사람처럼 잘 웃는 모습이다. - 김성동(소상가)
- 스님은 젊은 시절의 처절한 수행경력에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 리더십을 고루 갖춘 사탄의 선지식으로 손꼽을 만하다. - 사회동(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사심이 없다. 가식도 없다. 그것이 스님을 이끄는 이들이 많은 까닭이네다. - 임지연(영단 중앙 기자)

月庵堂 正대 大宗師

열반 5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초석을 놓으셨고, 종단의 대화함을 여는 등 조계종의 반석을 다지신 불교계의 큰 별이셨던 월암당 정대 대중사

월암당 정대 대중사의 열반 5주기를 맞이하여 대중사님의 생전 원력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합니다.

존경하는 제방의 고승대덕, 그리고 불자제현계에서는 공사가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함께 추모하여 주기를 앙망 하옵니다.

• 일시 2008년 11월 22일(토) 오전 11시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초판 '종이 위의 화향'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38 대실 2차지 청아람 203/1807 | T. 053_592_9155 / F. 053_592_9156